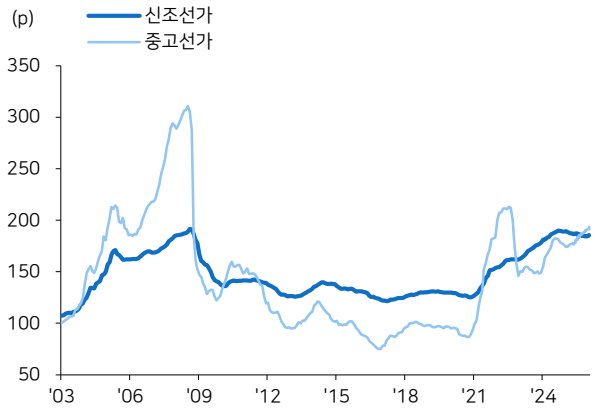
2026. 1. 14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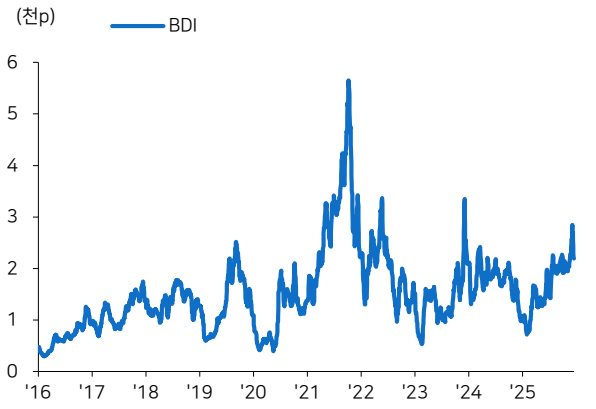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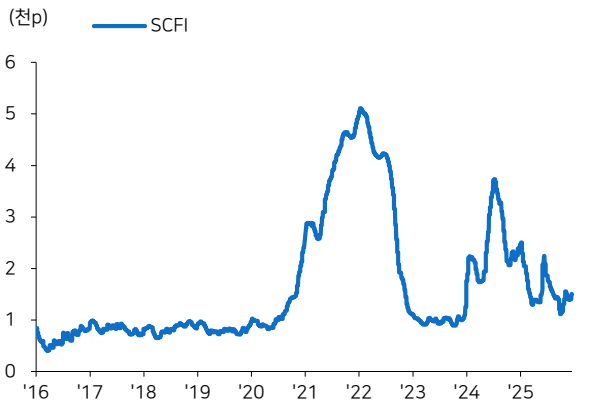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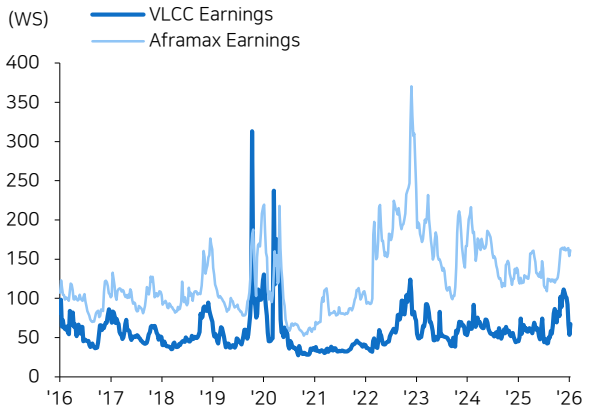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08.0p (-5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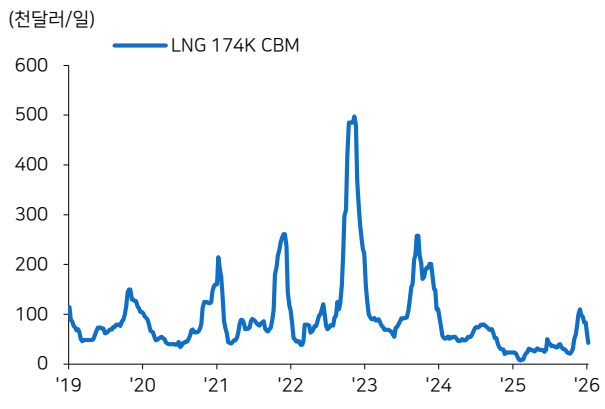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47.4p (-8.9p WoW)



VLCC Spot Rate 67.5WS (+14.0p WoW)



LNG Spot 운임 42.5천달러 (-1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크로아티아, 다목적 초계함 2 척 도입 추진...HD 현대중공업·TKMS·나발그룹 후보 **더구루**

크로아티아가 최대 16억 유로 규모 다목적 초계함 2척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유고슬라비아 독립 이후 최대 국방 조달 사업으로, 후보군은 6개 업체로 압축돼 평가 중이라고 보도됨. 한국 기업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만이 정보제공요청서 대상에 포함됐으며 Thyssenkrupp Marine Systems의 Braunschweig급 K-130, Naval Group의 Gowind 2500, Fincantieri의 Al Zubarah급 초계함 등이 경쟁 후보로 전해짐. 크로아티아는 자국 조선소 참여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삼고 있으나 주요 무기 · 전자 체계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외 조선소 건조 후 현지 일부 조립 방식이 유력하다고 알려짐. (https://buly.kr/ESzoCxk)

삼성重, 다음달 4 兆규모 미국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 **한국경제**

삼성중공업이 미국 LNG 개발사 Delfin Midstream과 약 4조원 규모 FLNG 1호기 본계약을 다음달 체결할 전망으로 전해짐. Delfin Midstream은 삼성중공업과 FLNG 1호기 건조를 위한 수주의향서 연장을 결정했으며,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제로 한 FID이 다음달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예고돼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보도됨. 향후 2 · 3호기까지 삼성중공업과 협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https://buly.kr/CB5xLCp)

고용노동부, '노조 개입 의혹' 한화오션 압수수색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 · 개입 의혹과 관련해 통영지청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거제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노사상생협력본부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전산 자료와 관련 문서가 확보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수사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약 7개월간 노동조합 내부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 ·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관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D3fkN6Q)

LNG charter rates slide as newbuilding deluge rains down **TradeWinds**

신조 LNG 운반선 인도가 확대되며 현대식 2행정 LNG 운반선 스폿 용선료가 2025년 말 이후 하루 약 30,000달러 하락했고, Spark Commodities 기준 대서양과 태평양 운임도 40,000달러 중반대로 낮아졌다고 보도됨. 신조 인도와 재인도 증가로 선복 가용성이 확대되며 2026년 초반까지 스폿 운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나, Venture Global 수출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가동으로 2월 말부터 제한적 지지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해짐. 다만 2026년은 전환기로 평가되며, 장기 용선 운임은 LNG 생산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2027~2028년에는 선복 축소와 수요 회복으로 점진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알려짐. (https://buly.kr/CskzNv4)

Tankers face 'multi-year recalibration' after Venezuela prompts tectonic shift **TradeWinds**

베네수엘라 관련 미국의 강경 조치 이후 탱커 시장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진입했으며, 중질유 물류 재편과 항로 변경으로 톤마일 수요가 2026년까지 지지될 가능성이 보도됨.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봉쇄 강화로 출항 병목과 VLCC 유턴 사례가 발생하며 제재 물량에 의존해 온 약 350척 규모 회색선대(grey fleet)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해짐. 베네수엘라 수출이 suezmax와 aframax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이동하며 VLCC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동산 장거리 원유 대체 여부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으로 알려짐. (https://buly.kr/3YEpOr0)

정기선 회장, '세계 최대' 가스선사 BW LNG 회동...'일월오봉도'로 협력 확대 제안 **더구루**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글로벌 가스선사 BW LNG 최고경영진과 만나 LNG 운반선 2척의 적기 인도를 약속하고 글로벌 가스선 시장에서의 장기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짐. BW LNG는 1955년 설립된 BW Group의 핵심 계열사로 약 450척의 선단을 운영 중이라고 알려짐. BW LNG는 지난해 11월 HD현대와 약 7,412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해 2028년 11월까지 인도받기로 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613QfVn)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